여자청소년들의 부모자녀관계와 심리적 복지 및 섭식태도의 관계

Relationships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with Eating Attitude of Female Adolescents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박사과정 황 미 진*
교 수 정 혜 정**
박 사 이 은 아
Major in Home Economics Education, Chonbuk National Univ.
Doctoral Student : Hwang, Mi-Jin
Dept. of Human Ecology
Associate Professor : Chung, Hye-Jeong
Ph. D. : Lee, Eun-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female adolescents's relationships with their parent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attitudes towards eating.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such as their school grades, and religion, and their parents' level of educationl, marital status, and income were also analyzed in relation with the three major variables. Female adolescents' psychological well-being consisted of two indices: self-esteem and depression. The sample of this study consisted of 419 female students from 4 middle schools and 2 high schools located in Jeollabuk-Do province and the data were collected by using the method of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The results of the analyses show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level of parental attachment across parents' marital status, father's education level, and family income. Participants' psychological well-being levels were also different according to their grades, parents' marital status, and father's education level and income; and the level of eating attitude was different according to their school grades. The correlation analyses results indicated that parental attachment was positively related to self-esteem but negatively to a depressive mood. In addition, female students' eating attitudes we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parental attachment and self-esteem, but positively with a depressive mood. Finall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und that a negative eating attitude was strongly influenced by a depressive mood, while parental attachment seemed to influence eating attitude indirectly through a depressive mood.

▲주요어(Key Words) : 여자청소년(female adolescents), 부모자녀관계(parent-child relationships), 섭식태도(eating attitude), 심리적 복지(psychological well-being)

* 주 저 자 : 황 미 진(E-mail : jinsdestiny@hanmail.net)
** 교신저자 : 정 혜 정(E-mail : chunghj@chonbuk.ac.kr)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우리사회는 마르고 날씬한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그 사람의 능력보다 외모가 갖는 가산점이 크게 작용하여 대인관계나 취업에서 유리한 혜택을 받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거의 모든 여성이 정상체중 이하의 체중을 갖기를 원하여 과도한 다이어트를 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오히려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이경혜, 2003). 과도한 다이어트는 식욕부진증이나 폭식증의 섭식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에게 심각한 신체적 손상과 심리적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Ata et al., 2007; Petrie, 1993, 이경혜, 2003 재인용).

이와 관련하여 섭식장애의 원인에 관해서 많은 연구가 행해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특정요인이 원인으로 규명된 바는 없으며 현재는 생물학적 요인, 심리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등이 다차원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Blundell & Hill, 1986; 박준성, 2001 재인용). 섭식장애의 심리적 또는 심리문화적 변인 가운데 관계 역동적 변인은 청소년들이나 성인초기의 내담자들이 경험하는 원 가족 경험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실제로 가족과 관련하여 과거와 현재를 불행하다고 느끼는 청소년들이 다른 청소년에 비하여 식이장애의 위험성이 높은데(유완송, 2004), 외국의 여러 연구자들(Ata et al., 2007; Dinsmore & Stormshak, 2003; Lerson, 1991)에 의하면 가족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양식은 내담자의 섭식행동에 대한 왜곡된 인지와 높은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Leung과 Schwarzmann(1996)은 가족의 낮은 기능이 섭식장애 내담자의 자존감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섭식장애의 생성 및 발달을 촉진시킨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섭식장애는 표면적으로는 개인적 장애의 성격이 강한 것 같지만 가족이라는 범위 안에서 발생하고 유지된다는 측면에서 가족의 역동성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정영선, 2005). 그러나 많은 연구들이 섭식장애의 신체적인 문제는 단순히 결과론적인 특성으로만 간주해온 점이 없지 않고(이규은・김남선, 1998) 국내에서는 섭식장애와 가족관계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섭식장애와 가족관계, 특히 섭식태도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과 그들의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섭식장애는 그동안 서구사회에서만 흔한 질환으로서 국내에서는 주목을 받지 못하였으나 국내에서도 섭식장애 환자의 유병율이 증가하면서 유병율과 원인, 치료방안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가 꾸준히 행해지고 있다(박준성, 2001). 그러나 서양연구에 비해 선행연구가 많지 않아 국내 섭식장애환자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에도 1990년대에 들어서 섭식장애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면서 폭식행동을 보이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특성을 밝히거나 치료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공성숙, 1997; 권호인, 1999; 윤화영, 1997; 이정애, 1998; 이지은, 2000; 정호선, 1997)들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 선행연구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식이장애을 보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김선정, 2005).

청소년 시기의 부모자녀의 관계는 심리적 복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청소년들은 자신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타인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장휘숙, 1998). 중학생의 경우 부모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고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한다고 하였다(정현희, 1993). 그러나 부모와의 애착이 불안정하거나 부정적으로 형성된 경우에는 자신과 타인을 부정적으로 지각하게 되고 우울감을 경험할 수 있다(Bowlby, 1989).

위에 열거한 바와 같이 섭식장애는 주로 청소년부터 발생하고 그 원인으로 심리적, 사회문화적, 가족적 요인들이 있으나 섭식장애대상과 가족관계의 선행연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여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섭식태도와 부모자녀관계, 특히 부모와의 애착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또한 섭식태도와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간의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들과 같이 섭식태도와 심리적 복지와의 관계, 부모자녀관계와 심리적 복지와의 관계 또한 연구해 보고, 이들 각각의 변인들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로써 왜곡된 섭식태도를 가진 여자청소년들과 그들의 가족적・심리적 요인간의 관계를 알아보아 섭식장애 성향의 문제를 해결할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섭식장애 환자가 아닌 일반 청소년의 섭식장애를 주제로 한 선행연구는 섭식장애의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섭식태도를 사용하였다(김문주, 2001; 노영경, 2005; 유완송, 2004). 본 연구 또한 일반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왜곡된 섭식태도의 정도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므로 섭식태도를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 성장단계이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다(유완송, 2004). 또한 청소년은 미래 국가성장의 주체로서 청소년의 문제는 청소년 시기에 그치지 않고 성인기 이후까지 연계되므로 본 연구는 청소년기의 부적응현상 중 왜곡된 섭식태도와 관련된 부모와의 관계 및 심리적 복지를 연구하여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여자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자녀관계, 심리적 복지, 섭식태도의 차이를 분석하고, 부모자녀관계와

심리적 복지 및 섭식태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여자청소년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자녀관계, 심리적 복지, 섭식태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여자청소년들의 섭식태도와 부모자녀관계 및 심리적 복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여자청소년들의 부모자녀관계와 심리적 복지가 섭식 태도에 미치는 직접 및 간접적인 영향은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기 부모-자녀 관계

청소년기는 사춘기와 더불어 시작되며, 이차 성징의 출현, 신체급등 등 신체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수반하고 심리적으로는 신체변화에 대한 적응,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자아정체감 확립의 발달과제를 경험하게 된다(김선정, 2005; 이부영, 1995). 청소년기의 부모-자녀관계는 애착과 자율성이라는 두 요소로 이해될 수 있다. 청소년들은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으로부터 탈피하여 자기 스스로 삶의 방향을 선택해 나가는 존재이고 싶어 한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자율성을 추구하더라도 정서적으로는 부모와 안정된 애착관계를 이루고 있을 때 건강한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지적되어 왔다(금명자 등, 2002).

Bowlby(1988)는 청소년기 애착이 아동기의 애착과 연장선상에 있고 청소년기에도 애착대상에 대한 행동과 상호작용은 줄어들어도 부모에 대한 애착의 중요성은 여전히 강조된다고 하였다. Armsden과 Greenberg(1987)는 청소년기 정체성은 부모와의 애착관계에서 벗어나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경험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며 부모에게 갖는 안정감의 느낌은 언제나 자신이 필요할 때 자기편이 되어 줄 수 있다는 신념으로 변환된다고 하였다.

청소년 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은 청소년의 심리 행동적 적응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예를 들어, 친밀한 청소년-부모애착관계는 진로 자기효능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데(Ryan, 1996; 장휘숙, 1997 재인용) 안정된 애착집단은 불안정 애착집단보다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학구적・직업적 자기효능감에서 더 좋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또한 청소년기에 부모와의 분리과정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으면 경미한 정도의 갈등에서부터 가출, 비행, 학교 중도탈락, 약물 오・남용, 혼전임신 등 청소년기의 심각한 문제들과 맞물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금명자 등, 2002).

가족관계가 안정적일 경우, 청소년들은 자존감이 높고 정서적 적응을 잘하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한 반면, 부모와 감정적 분리가 많이 되어있는 청소년일수록 부모로부터 거부되었다는 느낌을 많이 갖고 자신의 대인관계 매력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금명자 등, 2002). 그리고 유은희(1993)는 애착이 청소년들의 학업과 교우관계 등 학교생활의 적응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즉 청소년기의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벗어나 자율적이고 독립적이고자 하며 또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는 것이 이 시기의 주요한 발달과업으로 강조되어 왔으나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과 유대감은 여전히 중요하며 이 시기 자녀들의 건강한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심리적 복지

심리적 복지는 개인이 지각한 주관적인 행복감 또는 총체적인 감정을 의미하며(McDowell & Newll, 1990), Bradbern (1969)의 연구를 시작으로 주관적 복지(subjective well-being)라는 용어와 함께 사용되어 왔다. Bryant와 Veroff(1982)는 생활경험에 대한 반응과 정신건강에 대한 자기지각으로서 생활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심리적 복지라고 하였으며, Medley(1976)는 심리적 복지는 생활전체에 대한 행복과 만족의 주관적인 감정 또는 일종의 태도로 심리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소옥현, 2005 재인용).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는 긍정적인 면을 강조한 입장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함께 보는 입장으로 나누어진다(김오남, 1998). 긍정적인 면을 강조한 경우는 복지의 중요 예측변인으로서 객관적 조건과 생활영역에 대한 만족감을 포괄적으로 표현한 생활만족도를 강조한 경우로 이희정과 이숙현(1995)이 긍정적인 정서와 생활만족도를 심리적 복지로 정의하였다. 반면에 장재정(1987)은 심리적 복지는 개인의 경험 내에서 이루어지는 주관적인 지각이고 개인의 삶의 양상을 총괄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양면을 동시에 가진다고 하였다. 또한 김오남(1998)은 긍정적 측면인 기쁨이나 생활만족도, 자존감 등과 부정적 측면인 우울, 불안 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생활만족도가 높은 경우 또는 우울과 불안점수가 낮은 경우 심리적 복지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와 같이 심리적 복지의 지표를 생활만족도 및 자존감과 우울로 보거나(백양희・최외선, 1997; 진미정, 1993),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생활만족도, 불안과 우울로 본 연구(Emmons, 1992), 기쁨 및 자존감과 우울로 보는 등(Barnett, 1985) 다양하게 정의 내리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하여, 자아존중감과 우울감을 심리적 복지

의 주요 지표로 간주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가치 판단을 하고 그런 판단에 의해서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는 측면과 연관이 있다. Maslow(1965)는 모든 인간은 자존감의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를 충족시킨 사람은 자신감이 있고 자신을 가치 있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이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사람은 열등감을 가지고 자신을 보잘 것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자신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정신질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Coopersmith(1967)는 자아존중감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로써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로 표현되며, 자신의 능력, 중요성, 성공, 가치 등에 대하여 스스로 어느 정도 믿고 있는지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Rogenberg(1965)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서 자기존경과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라고 하였다(박현희, 1997). 긍정적인 자아 존중감을 형성한 사람은 자신과 타인을 수용하며 자신과 타인의 능력을 인식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적이며 주위환경에 대해 소속감을 갖는(Marsh, 1986; 이정수, 2006 재인용)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부정적인 속성을 갖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낮다고 하였다(Brown, 1987; 이정수, 2006 재인용). 자아존중감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종합해 볼 때,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현실적인 자기수용과 정확한 자기지각에 토대를 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자신을 사랑하는 심리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다.

우울감은 자주 심리적 복지의 부정적 지표로 간주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우울한 느낌이지만, 대표적인 증상은 슬픈 감정이다(김계현, 2000). 우울은 그 정도에 있어서 단순한 아픔이나 우울한 기분에서부터 지속적인 상실감이나 무력감, 나아가서는 자살기도를 포함하는 정신병적인 상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인간의 정신건강이나 적응에 매우 중요한 지표로 간주되고 있다(김정희, 1995). 우울로 정의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증상을 나타내야 하는데 첫째는 정서적으로 슬픈 감정과 외로움, 공허감을 지속적으로 느끼는 것과 둘째는 자기 자신, 자신의 세계, 자신의 미래에 대해 인지적 왜곡을 보이며 사고력 및 주의력 저하가 일어나는 인지적 증상, 마지막으로 불면증, 식욕감퇴, 체중감소 등의 생리적 증상이 우울의 세 가지 증상이다(신재은, 1999).

우울은 사춘기를 전후해서 급격히 증가하여 청소년기에 많은 학생들이 경험하는 전형적인 심리적 부적응의 하나이다(이정수, 2006). 청소년의 우울증 빈도가 성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Rutter, 1986; 이정수, 2006 재인용) 청소년기에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성인기에도 우울증을 경험할 비율이 높다고 한다(Kandel & Davies, 1982). 청소년의 우울증상은 은폐된 상황에서 예측할 수 없는 충동적이고 파괴적인 행동표현으로 발현되는 경향이 있는데(Anthony, 1970), 반항, 결석, 가출과 같은 행동장애나 범죄행위도 우울과 함께 나타난다. 그리고 우울증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은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회적 고립의 경향을 보이며 불안, 공황, 섭식장애 등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Cantwell & Baker, 1992; 이정수, 2006 재인용).

3. 섭식태도[1)]

섭식이란 생을 영위하는 데에 필수적인 생물학적 기능이다. 갓 태어난 아기는 곧 어머니와 수유-섭식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유대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의 하나이고 이러한 섭식행동은 그 후 일생동안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인 상호관계 속에서 계속되어진다. 그런 점에서 섭식장애(eating disorder)란 생물학적, 정신적, 사회적 요소들이 모두 관계되는 일종의 심리사회생물학적 장애라고 할 수 있다(최진숙, 1991).

섭식태도의 현저한 이상을 특징으로 하는 장애로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장애인 신경성 식욕부진증(anorexia nervosa)과 신경성 대식증(bulimia nervosa)으로 나뉘어 진다. 이 두 식사관련 장애의 공통적인 증상은 체중과 체형에 대한 지각 이상이며, 신경성 식욕부진증(거식증)은 최소한의 정상체중 조차 유지하기를 거부하고 신경성 대식증(폭식증)은 정상범주이상의 체중을 유지한다는 점만이 다를 뿐, 이 두 질환은 모두 식사를 극도로 제한하거나 폭식을 하고 난 후 체중을 빼기 위해 비정상적인 노력을 하는 등 식사태도의 현저한 장애를 보인다(APA, 1994; 박준성, 2001 재인용). 섭식장애의 결과는 많은 신체적, 정신적 증상과 징후들을 초래하게 되는데 심한 혹은 만성적인 섭식장애 대상자들은 전해질 불균형, 치아 에나멜의 부식, 영구적인 뇌손상, 불임, 만성적인 허약, 기관손상, 그리고 심부전을 가져오며 장기간의 합병증으로는 쿠싱질환과 골다공증이 있다(황란희 · 신혜숙, 2000).

섭식장애는 연령에 따라서 발달단계와 상관이 있고 그 정도도 경미한 식습관의 이상에서부터 심한 질환의 형태까지 광범위하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이 완성되는 시기인 청소년 후기에 형성된 건전하고 올바른 식생활은 성인

1) 섭식태도에 관한 선행연구 중에는 섭식태도척도를 사용하고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지만 '섭식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유완송, 2004; 황란희 · 신혜숙, 2000; 성미혜, 2005 외). 섭식장애(eating disorder)란 일종의 정신사회생물학적 장애(최진숙, 1991)로서 정신질환 진단편람 4판(DSM-Ⅳ)에 정식으로 기재된 '질환'으로 본 연구에서의 대상자가 일반 여자 청소년이고 연구대상자의 식사습관에서 섭식장애성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섭식태도' 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기로 이어지며 이후의 생의 건강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노영경, 2005). 보다 심각한 형태의 섭식장애가 나타나는 것은 사춘기 이후인데 이들의 대부분은 자아주체성, 신체상, 성, 자율성 등 청소년기의 주요한 발달과제의 이상을 동반한다(최진숙, 1991). 미국정신건강연구소 조사에 의하면(www.apa.org) 섭식장애 경험자의 대다수인 90%정도가 청소년과 젊은 성인여성이라고 하였고, 섭식문제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한 Dinsmore와 Stormshak(2003)은 청소년과 젊은 성인 여성의 1-3%가 섭식장애 증상을 보이며 젊은 성인 여성의 약 20%가 섭식장애에 준하는 증상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Ata 등(2007)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섭식장애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섭식장애 문제가 여자 청소년들에게 특히 중요한 이슈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데, 실제로 Silva(2007)는 보통의 고등학교 여학생을 섭식장애 위험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섭식장애에 대한 현상은 신체적 발달과업을 이루고 긍정적인 신체상을 형성해야 할 중요한 발달시기에 있는 청소년의 경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Stein, 1997, 김선정, 2005 재인용). 섭식장애 청소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정상적인 사고의 발달이 어렵고 자신의 신체발달에 따른 정상적인 느낌을 경험할 수 없으며 체격에 대한 비현실적인 생각을 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4. 부모와의 애착 및 심리적 복지와 섭식태도의 관계 연구

청소년 자녀의 부모애착과 심리적 복지 그리고 섭식태도의 연관성에 관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있다. 우선 부모자녀관계 혹은 가족기능과 섭식태도 문제의 연관성에 대하여 Ata 등(2007)은 부모의 지지가 낮을수록 청소년의 섭식문제 행동이 더 높았음을 발견하였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섭식문제와 부모와의 관계에 직접적으로 초점을 두지는 않았지만 섭식행동문제의 중요한 상관요인으로서 가족기능에 초점을 두어 그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Dinsmore와 Stormshak(2003)은 여자 청소년의 섭식태도와 행동은 가족응집성과 적응력 차원으로 측정한 가족기능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밝혔고, Lundholm과 Waters(1991)는 그들의 임상연구에서 섭식장애와 가족관계 사이의 전반적인 상관관계를 밝혔는데 피험자들이 가족관계를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 그들의 섭식행동과 음식에 대한 관점이 왜곡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Lerson(1991, 정영선, 2005 재인용)에 의하면 가족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양식은 내담자의 섭식행동과 신체에 대한 왜곡된 인지와 높은 상관이 있었다. 가족기능이 섭식장애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자들(Felker & Stivers, 1994; Leung & Schwarzmann, 1996)은 가족의 낮은 기능이 섭식장애 내담자의 자존감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섭식장애의 생성 및 발달을 촉진시킨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선행연구에서도 부모자녀관계 혹은 가족기능과 섭식문제의 관련성을 밝히고 있는데, 공성숙과 현명선(2002)의 섭식장애 환자의 모녀관계에 관한 연구에서는 환자의 삶에 어머니가 과잉개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영선(2005)의 청소년의 섭식장애와 가족기능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연구에서는 폭식증의 경우 내담자 가족의 상호작용이 대인관계가 부적절하고 감정표현이 격렬하며 가족의 밀착이 약할수록 내담자는 체중을 줄이고 칼로리를 적게 섭취하려고 하는 반조정 행동의 경향을 심하게 보였다. 거식증의 경우 가족의 밀착이 강하고 갈등회피경향이 강하며 부정적 감정의 표현이 적을수록 심하게 나타났다. 또한 가족관계가 원만한 청소년이 가족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청소년에 비해 신경성 거식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김규민, 2000) 가족 성원들 간의 지나친 밀착이나 부모의 지나친 간섭은 오히려 신경성 거식성향을 강화시킨다고 보았다.

한편 Dinsmore와 Stormshak(2003)은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기능이 섭식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기통제력 및 대처행동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발견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가족기능이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긍정적인 대처행동을 증진시킴으로써 결국 건강한 섭식행동을 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국내 연구가 부족한 현 시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여자 청소년들이 지각한 부모와의 태도가 심리적 복지를 통해 섭식태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색적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섭식태도는 정신건강 혹은 심리적 복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심리적 복지의 긍정적 지표인 자아존중감과 섭식태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성미혜(2005)의 여대생의 섭식태도와 자아 존중감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섭식장애 현상을 더 빈번히 보고한다고 하였고, 이상선(1993)과 안소연(1994), 황란희와 신혜숙(2000)은 식이장애와 자아존중감과 관련해서 폭식집단이 정상집단보다 자아존중감이 더 낮았고 식이장애행동은 자아존중감과 부적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하였다. 또한 Button(1996)과 Mintz(1988)은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 낮은 자아존중감과 높은 우울수준을 불러 일으켜 섭식장애의 주요한 발병원인이 된다고 하였고, Ata등(2007)도 청소년의 낮은 자아존중감과 섭식태도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유완송(2004)과 김규민(2000)은 자아존중감이 섭식태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섭식태도와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관한 연구결과는 아직 일관적이지 않다.

다음으로 섭식태도와 우울감과의 관계 연구를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섭식장애 환자들은 대개 우울증을 비롯한 다양한 정신병리증상들도 함께 나타내는 경향이 있으며(Kinder, 1991) 섭식장애 환자들의 주요 우울증 평생 발병률은 25~80%로 자주 나타나는 등 우울과 섭식장애는 높은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즉, Kinder(1991)의 연구에서 나타난 섭식장애와 우울감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는 신경성 식욕부진증 환자 중에서 우울을 동반하는 비율이 35~85%이고 폭식증환자의 우울과 불안 측정 시 매우 높은 점수를 보여 우울과 섭식장애의 관계가 강하게 지적되고 있는 김민연(2001)의 연구결과와 상동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안소연(1994)의 연구에서도 폭식행동을 보이는 집단이 정상집단에 비해 우울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Wardie(1987)은 개인의 폭식이나 과식을 촉진하는 불쾌한 정서로 우울이 가장 많이 논의된다고 하였다. 김선정(2005)은 폭식행동이 우울과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고 그러한 우울과 부정적인 정서는 다시 폭식행동을 반복하게 하며 이러한 우울과 폭식행동이 순환적인 관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리고 조아미(1999)는 청소년의 섭식행동에 대해서 정서관련 섭식욕구가 어느 정도 설명력을 가지느냐를 단계적 회귀분석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우울 및 불안, 분노, 무료함이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발견하였다.

5. 기타 관련된 일반적 특성 변인들

본 연구에서 여자 청소년들의 섭식태도는 부모와의 애착 및 심리적 복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을 가정하였으며, 기타 섭식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일반적 특성변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연령 및 학교급간에 따른 섭식태도의 연구(Roth, 1995)에서는 7~8학년의 여학생들이 날씬해지려는 욕구와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하였고 Casper (1996)와 Wright(1995)는 청소년기는 섭식장애에 매우 취약한 시기여서 13~18세 사이에 섭식장애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또한 학교급간의 경우 무료할 때 먹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는 경향이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더 강하다고 나타나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정서상태에서 섭식욕구가 강할 수 있다고 하였다(조아미, 1999). 권두승과 조아미(1998)의 연구에서는 학교 급별에 따라 섭식행동 및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성은(2001)과 유완송(2004)은 연령에 따라 섭식태도의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가족소득에 따른 섭식태도의 연구는 그동안 섭식장애는 중류층 이상의 계층에서 발생하는 질병으로 알려져 왔는데 이제는 하류층 청소년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특히 성취욕이 강한 집단에서 섭식장애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 가족경제상태와 섭식장애는 별 상관이 없다고 하였다(권두승・조아미, 1998). 부모의 결혼상태에 따른 섭식태도에 관한 연구는 부모의 이혼이나 사별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 즉 변화된 부모의 결혼관계는 가족기능과 자녀의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동거부모형태는 가족기능과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단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이경희・유영달, 2006)가 있다. 부모의 학력에 따른 섭식태도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정영선(2005)의 청소년의 섭식장애와 가족기능과의 관계연구가 있는데 폭식증을 가진 연구대상자의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섭식장애를 보인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자존감과 우울감이 일반적 특성 변인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연령에 따라 우울감에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이은아, 2000; 장재효, 1989)가 있고 자존감도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유완송, 2004). 부모의 결혼상태 및 거주상태에 따라서 이경희와 유영달(2006)은 부모의 결혼관계와 동거여부는 자녀의 심리적 안녕에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애착관계에 관한 김인숙(2001)의 연구결과,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애착수준이 더 낮았다. 가족의 일반특성에 따라 청소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로 이경희와 유영달(2006)은 부성 또는 모성의 상실은 청소년의 인격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였고, 민병애(1991)와 이경룡(1987)은 구조적 결손가족의 학생들이 정상가족의 학생보다 심리적으로 부정적이며 생활만족도도 낮다고 보고하였다. 부모자녀관계는 동거부모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친부모가족과 친모가족의 청소년이 계부모가족과 친부가족의 청소년에 비해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경희・유영달, 2006).

이상에서와 같이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변인에 따른 부모와의 애착, 심리적 복지 및 섭식태도에 관한 연구는 연령 혹은 학교급별, 부모의 교육수준 및 결혼상태 등에 초점을 두었으나 이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고 연구결과가 일관적이지 않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여자청소년들의 부모자녀관계와 심리적 복지(자존감, 우울감) 및 섭식태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전라북도에 소재한 중학교, 고등학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질문지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대상자를 여자청소년으로 선정한 근거로는 섭식장애환자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청소년기나 초기 성인기에 더 빈번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인		구 분	빈 도	(%)	변 인	구 분	빈 도	(%)
학교 급별		중학생	217	(51.8)	부모 결혼 상태	부모생존, 동거	320	(76.7)
		고등학생	202	(48.2)		부모생존, 별거	74	(17.7)
부모 교육수준	부	중졸 이하	69	(17.6)		한부모	23	(5.5)
		고 졸	214	(54.6)	월 소득	100만원 이하	69	(18.6)
		대졸 이상	109	(27.8)		101~200만원 이하	137	(37.0)
	모	중졸 이하	79	(20.2)		201~300만원 이하	87	(23.5)
		고 졸	248	(63.3)		301만원 이상	77	(20.8)
		대졸 이상	65	(16.6)	종 교	없 다	154	(36.8)
						있 다	264	(63.2)

하다는 성별 및 연령별 섭식장애 조사연구(APA, 1994; Hoek, 1993; King, 1998; Lally, 2007)를 기초로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거식증과 폭식증의 섭식장애를 가진 대상은 청소년과 젊은 성인여성으로 나타난다는(김정욱, 2000) 연구보고에 의거 하였다.

본 연구조사는 전라북도 중소도시에 소재한 4개 중학교와 2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47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428부를 수집하였으며, 이 가운데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질문지 9부를 제외한 419부가 최종 분석 자료로 이용되었다.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연령, 학년, 종교, 부모의 결혼상태, 부모의 학력, 가정의 월평균소득 등을 포함하였다.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생이 217명(51.8%), 고등학생이 202(48.2%)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비율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조사대상자 부모의 결혼 상태는 생물학적인 부모의 유무와 동거여부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대상자의 76.7%가 두 분 모두 생존하고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두 분 모두 생존하나 별거중인 경우는 17.7%, 두 분 중 한분만 생존한 경우는 5.5%였다. 부모의 교육수준을 보면 아버지 집단의 경우는 중졸이하 17.6%, 고졸 54.6%, 대졸이상 27.8%로 나타났으며 어머니 집단의 학력은 중졸이하 20.2%, 고졸 63.3%, 대졸이상 16.6%로 아버지 집단이 어머니 집단보다 교육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 소득은 100만원 이하 18.6%, 101-200만원 37.0%, 201-300만원 23.5%, 301만원 이상 20.8%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종교는 종교를 가지지 않은 집단 36.8%, 종교를 가진 집단 63.2%로 조사대상자 중 종교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 많았다.

2. 측정도구

1) 부모자녀 관계 : 부모에 대한 애착척도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Armsden과 Greenberg(1987)에 의해 개발된 자녀가 느끼는 부모에 대한 애착 척도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를 사용하였다. 부모에 대한 애착 척도는 청소년들의 부모와 동료에 대한 정의적, 인지적, 행동적 측면의 애착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도구로 정정숙(1994)이 번안한 것에서 부모와의 애착을 측정하는 28문항을 사용하였다. IPPA는 세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모와의 언어적 의사소통 정도와 질을 측정하는 의사소통영역(10문항), 청소년들의 정서적 욕구에 대한 부모의 반응에 있어 안정성을 측정하는 신뢰감 영역(10문항), 부모로부터 정서적 유리 또는 부모에 대한 분노를 측정하는 소외감 영역(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 까지의 Likert식의 5점 Likert척도로 평정하였으며 소외감 차원을 구성하는 문항을 제외한 모든 부정적 문항들은 반대로 채점하였다. 신뢰감 문항과 의사소통 문항을 합한 점수에서 소외감 문항 점수를 뺀 것을 개인의 부모에 대한 애착점수로 하였으며 이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애착이 잘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하였다. 본 연구에서 부모에 대한 애착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85로 나타났다.

2) 심리적 복지

본 연구에서의 심리적 복지는 자아존중감과 우울감으로 구성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이훈진과 원호택(1995)이 번안한 한국판 척도를 사용하였다.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는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 등 모두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아존중 정도와 자아승인 양상을 측정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점으로 계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질문지는 Likert식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고 신뢰도는 Cronbach's α = .83 이었다.

우울감 척도는 Radolff(1977)의 CED-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을 사용한 황경순(1998)의 연구를 재인용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0문항의 Likert식 4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긍정적인 문항은 역점

으로 계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우울감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87 이었다.

3) 섭식태도

섭식태도 척도는 일반 청소년들이 자신의 섭식장애성향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척도를 선정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 결과, Garner와 Garfinkel(1979)이 개발한 섭식태도 검사(EAT)와 Halm, 등(1981)가 개발한 폭식질문지(Binge-Eating Questionaire)를 신미영(1997)이 수정 보완한 도구에서 섭식문제에 관한 어려움을 나타내는 13문항을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식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섭식태도에 어려움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79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자료의 분석은 SPSS WIN 12.0을 이용하였고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자녀관계, 심리적 복지 및 섭식태도의 차이검사는 t - test와 ANOVA를 실시하였고 여자청소년들의 부모자녀관계와 심리적 복지, 섭식태도와의 관계는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부모자녀관계와 심리적 복지가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결과 및 해석

1. 일반적 특성 변인에 따른 차이

<연구문제 1> 을 분석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인 학년, 부모의 결혼상태, 부모의 교육수준, 월소득, 종교에 따른 부모에 대한 애착, 심리적 복지, 섭식장애의 차이를 t 검증과 F 검증 그리고 Duncan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 특성 변인에 따른 부모에 대한 애착의 차이는 <표 2>와 같으며 부모 결혼상태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조사대상자의 부모가 생존하고 동거중인 집단과 한부모인 집단이 부모가 생존하지만 별거중인 집단보다 더 부모에 대한 애착의 정도가 높았다.

부모 교육 수준에 따른 부모에 대한 애착의 차이에서는 아버지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조사대상자의 아버지 학력이 고졸 이상인 집단이 중졸이하의 집단보다

<표 2> 일반적 특성 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M(SD)/D

변 인	구 분		부모 애착	심리적 복지		섭식태도
				자존감	우울감	
학 년	중		4.12(1.87)	3.13(.65)	2.32(.42)	2.24(.41)
	고		3.99(1.96)	3.02(.67)	2.41(.48)	2.41(.47)
	t (df)값		0.73(416, 411)	1.82(417, 413)	-2.08*(417, 404)	-3.96**(417, 398)
부모 결혼 상태	부모생존, 동거		4.17(1.89) b	3.11(.67)	2.34(.43) a	2.07(.54)
	부모생존, 별거		3.47(1.97) a	2.96(.67)	2.52(.54) b	2.13(.56)
	한 부모		4.22(1.65) b	2.90(.47)	2.33(.34) a	2.11(.70)
	F (df) 값		4.23*(2, 414, 416)	2.41(2, 414, 416)	5.04**(2, 414, 416)	.46(2, 414, 416)
교육수준	부	중졸이하	3.46(1.79) a	2.94(.65) a	2.45 (.47)	2.14(.59)
		고 졸	4.11(1.98) b	3.04(.66) a	2.35 (.44)	2.08(.56)
		대졸이상	4.29(1.72) b	3.26(.67) b	2.34 (.45)	2.04(.51)
		F (df) 값	4.39*(2, 388, 390)	6.23**(2, 389, 391)	1.57(2, 389, 391)	.80(2, 389, 391)
	모	중졸 이하	3.83(1.72)	2.93(.63) a	2.43(.45)	2.15(.51)
		고 졸	4.12(1.92)	3.07(.65) a	2.37(.43)	2.09(.55)
		대졸 이상	4.27(1.90)	3.33(.67) b	2.27(.41)	1.95(.52)
		F (df) 값	1.08(2, 388, 390)	6.88**(2, 389, 391)	2.33(2, 389, 391)	2.64(2, 389, 391)
월소득	100만원 이하		3.64(2.11) a	3.02(.68) a	2.39(.51)	2.05(.55) ab
	101~200만원 이하		3.82(1.82) ab	3.00(.67) a	2.39(.44)	2.18(.57) b
	201~300만원 이하		4.32(1.89) bc	3.20(.56) ab	2.33(.41)	2.04(.49) ab
	301만원 이상		4.58(1.98) c	3.26(.71) b	2.31(.45)	1.97(.55) a
	F (df) 값		4.18**(3, 365, 368)	3.48*(3, 366, 369)	.78(3, 366, 369)	2.97*(3, 366, 369)

*p<.05, **p<.01, ***p<.001

부모애 대한 애착의 정도가 높았다. 한편 어머니 학력에 따른 부모애착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조사대상자 가정의 월 소득에 따른 부모에 대한 애착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월소득 301만원 이상의 집단이 100만원 이하인 집단보다 더 부모애 대한 애착의 정도가 높았다. 일반적 특성변인 중 학년과 종교에 따라서는 부모에 대한 애착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중 학년에 대한 부모애착관계의 차이 결과는 청소년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부모에 대한 애착이 낮다는 김인숙(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일반적 특성변인에 따른 심리적 복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은데 학년, 부모결혼상태, 부모교육수준, 월소득에 따라 자존감이나 우울감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학년에 따른 심리적 복지의 차이는 우울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하여 지난 한달 동안 심리상태가 불안하고 우울하다고 지각하고 있었는데 이는 청소년의 연령에 따른 우울은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이은아(2000)와 장재효(1989), 강미선(1993)의 연구결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부모결혼상태에 따른 심리적 복지의 차이는 우울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조사대상자의 부모가 생존하고 동거중인 집단과 한부모인 집단이 부모가 생존하지만 별거중인 집단보다 덜 우울하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심리적 복지의 차이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자존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이하인 집단보다 대졸인 집단이 자신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존중하고 있었다.

조사대상자 가족의 월 소득에 따른 심리적 복지의 차이는 자존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월 소득이 301만원 이상인 집단이 200만원 이하인 집단보다 더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 특성변인에 따른 섭식태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년과 월 소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월평균 소득이 101~200만원 집단보다 301만원 이상인 집단이 섭식태도에 있어서 섭식장애의 정도가 더 높았다.

2. 부모에 대한 애착과 심리적 복지 및 섭식태도와의 상관관계

조사대상자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심리적 복지, 부부모에 대한 애착과 섭식태도, 심리적 복지와 섭식태도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부모에 대한 애착과 자존감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와 긍정적인 애착이 형성될수록 자존감의 정도는 높았다. 한편 부모에 대한 애착과 우울감 관계는 자존감과는 반대의 결과로 부모에 대한 애착의 정도가 낮을수록 청소년이 느끼는 불안과 우울의 정도는 높았다.

부모에 대한 애착과 섭식태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에 대한 애착의 정도가 높을수록 왜곡된 섭식태도를 보이는 정도가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심리적 복지와 섭식태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존감과 섭식태도는 부적 상관관계를($r=-.17$, $p<.01$), 우울감과 섭식태도는 정적인 상관관계($r=.31$, $p<.01$)를 보였다. 즉 자신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존중할수록 섭식태도에 있어서 섭식장애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반대로 자신의 처지에 대해 비관하고 불안하며 우울할수록 왜곡된 섭식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섭식태도에 대한 관련변인의 영향력

여자청소년들의 섭식태도에 대한 관련변인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앞서 실시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섭식태도의 차이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인과 부모에 대한 애착, 심리적 복지를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 과 같다.

<표 4>에 의하면 여자청소년의 섭식장애적인 섭식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우울감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학년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우울감이 높을수록,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섭식장애적인 섭식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의 섭식태도에 대한 설명력은 16%이었고 이중 예측력이 가장 큰 변인은 우울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폭식이나 과식을 촉진하는 불쾌한

<표 3> 변인 간 상관관계

변 인	부모 애착	자존감	우울감
자존감	.48**		
우울감	-.47**	-.62**	
섭식태도	-.19**	-.17**	.31**

**p<.01

<표 4> 섭식태도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설명변수 \ 종속변수	섭식태도	
	b	β
통제변인		
학 년[a]	.22	.20***
월소득[b]	-.08	-.07
부모 애착	-.01	-.05
자존감	.07	.08
우울감	.40	.33***
Constant	2.10	
R^2	.16	
F	14.25***	

***p<.001
※ a : 학년 : 중=0・고=1, b : 월소득 : 200만원이하=0・201만원이상=1

<표 5> 경로분석을 위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자존감		우울감		섭식태도	
		b	β	b	β	b	β
독립변수	부모애착	.17	.48***	-.11	-.47***	-.02	-.07
	자존감					.04	.05
	우울감					.38	.31***
상수		2.40		2.81		1.15	
F-Value		126.57***		116.12***		15.13***	
R^2		.23		.22		.10	
Durbin-Watson		1.79		1.88		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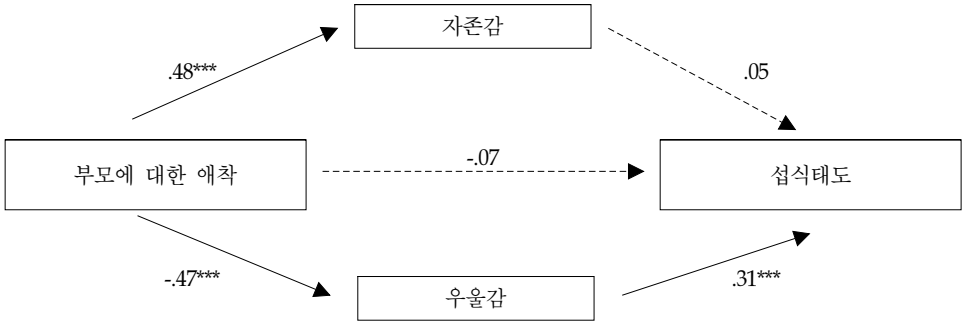
***p<.001

정서로 우울이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다는 Wardle(1987)과 Atkinson과 Ringuette(1967)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조아미(1999)의 청소년의 정서관련 섭식욕구에 관한 연구에서 폭식 및 음식에의 집착에 대하여 분노, 무료함, 우울/불안 순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반면에 부모에 대한 애착과 자존감, 월 소득은 섭식태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자존감에 대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식이태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유완송(2004)과 김규민(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앞에서는 섭식태도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직접영향을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부모에 대한 애착이 자아 존중감, 우울감의 심리적 복지를 통해 섭식태도에 미치는 간접영향 분석을 위해 경로분석을 탐색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가족의 기능이 섭식장애의 생성 및 발달에 자아존중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Leung와 Schwarzmann(1996)의 연구결과와 자기통제력과 대처행동이 가족기능이 섭식행동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였다는 Dinsmore와 Stormshak(2003)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5> 및 <그림 1>, <표 6>과 같은데 부모에 대한 애착과 자존감은 섭식태도에 직접 영향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우울감은 섭식태도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개 독립변인들이 섭식태도 변량의 1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우울감이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우울감이 높을수록 섭식장애적인 섭식태도의 정도가 높았다. 다음으로 부모에 대한 애착이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매개변수들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자존감, 우울감에 대한 부모에 대한 애착의 설명력은 각 23%, 22%으로 부모에 대한 애착은 자아존중감과 우울에 직접영향을 미쳐서 부모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고, 우울감이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부모에 대한 애착과 심리적 복지가 섭식태도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은 <그림 1>, <표 6>과 같다. 부모에 대한 애착은 섭식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청소년의 우울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간접적으로 섭식태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섭식태도에 대한 부모 애착과 심리적 복지의 전체 인과효과

	섭식태도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인과효과
부모 애착	-.07	-.11	-.18
자존감	.05	-	.05
우울감	.31	-	.31



***p<.001
*------▶ 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임

<그림 1> 섭식태도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이러한 결과는 부모에 대한 애착이 섭식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부모에 대한 애착이 낮을수록 우울감이 높아지고 섭식태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즉 부모에 대한 애착이 왜곡된 섭식태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 부모에 대한 애착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중 자아존중감은 중간매개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나타났는데, 이는 가족의 낮은 기능이 섭식장애자의 자존감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섭식장애의 생성 및 발달을 촉진시킨다는 Leung와 Schwarzmann (199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종합하면 섭식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청소년의 우울감이었고 부모에 대한 애착은 섭식태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섭식태도에 대한 전체 효과를 통해 청소년의 왜곡된 섭식태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우울감임이 밝혀졌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자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에 대한 애착, 심리적 복지, 섭식태도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부모애착 및 심리적 복지가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에 대한 애착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부모의 결혼상태, 아버지의 학력, 월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부모의 결혼상태에서는 조사대상자의 부모 모두 살아있고 동거중인 집단과 한부모인 집단이, 부모 모두 살아있으나 별거중인 집단보다 부모에 대한 애착의 정도가 높았다. 이는 친부모가족의 청소년이 계부모 가족의 청소년에 비해 부모자녀관계가 더 좋다는 이경희와 유영달(2006)의 연구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고, 부성 또는 모성의 상실로 인한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부적응이 부모자녀관계에 부정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사료된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복지는 학년, 부모결혼상태, 부모의 교육수준, 월소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년에 따라서는 우울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우울하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또한 부모의 결혼상태에 따라서는 우울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조사대상자의 부모가 모두 살아있지만 별거중인 집단이 부모가 살아있고 동거중인 집단과 한부모인 집단보다 우울감이 더 높았다. 부모의 교육수준에 있어서 부모 모두의 학력에 따라 자존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이하인 집단보다 대졸인 집단이 자신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존중하고 있었다. 월 소득에 따라서는 자존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월 소득이 301만원 이상인 집단이 200만원 이하인 집단보다 자신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셋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섭식태도의 차이는 학년과 월소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섭식태도에 있어서 섭식장애적인 성향이 더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섭식태도에 있어서 섭식장애의 정도가 더 높았다.

월소득에서는 101~200만원 이하인 집단이 301만원 이상인 집단보다 왜곡된 섭식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이 높을수록 섭식장애 성향이 있다는 명재원(1999)과 Roth(1995)의 연구와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어떤 정서상태에서 섭식욕구가 강하다고 한 조아미(1999)의 연구와 일치한다. 그러나 이성은(2001)의 연구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학년차에 따라 섭식태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우울감이 더 높고 부정적인 섭식태도가 더 높았다는 본 연구결과는 대학입시와 가까워지고 사회에 대한 책임이 지워지기 시작함으로써 받는 심리적 스트레스 때문에 정서적으로 우울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섭식태도에 대해 왜곡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 시기가 마르고 날씬한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조아미, 1999)이기 때문인 것과 우울감과 연관된 부적응행동으로서 섭식장애적인 섭식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월소득에서는 101~200만원 이하인 집단이 301만원 이상인 집단보다 왜곡된 섭식태도를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가족경제상태와 섭식장애는 별 상관이 없다고 한 권두승과 조아미(199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한편 조사대상자의 종교, 부모의 결혼상태,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섭식태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섭식태도 차이 결과는 폭식증 내담자의 부모가 학력이 높고 상위층의 직업교육을 받을수록 내담자의 날씬한 몸매에 대한 강박과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 강하게 나타나 섭식장애를 나타낸다고 한 정영선(2005)의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다.

넷째, 부모에 대한 애착과 심리적 복지의 관계에서 자존감과 정적 상관관계를, 우울감과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와의 애착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인다는 이정수(2006)와 부모에 대한 애착의 질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인생만족 점수가 높아진다고 한 Greenberg(198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청소년기에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고 자신있게 행동하는 청소년일수록 그들의 부모와의 애착이 높다고 한 정현희(1993)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또한 청소년기 부모애착과 자존감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Ata et al., 2007; Armsden, 1987; MeComick & Kennedy, 1994; Rice, 1990)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또한 우울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부모애착 안정성이 유의하게 낮다고 보고한 Greenberg와 Mitchell(1990)의 연구결과와 불안정애착유형의 집단이 안정애착유형보다 우울점수가 현저히 낮고 두 배의 우울증 발병률이 난다는 (Biffulco, 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에 대한 애착과 심리적 복지의 상관성은 매우 일관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부모에 대한 애착과 섭식태도와의 상관관계에서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결과는 가족관계를 부정적으로 평가 할수록 그들의 섭식행동과 음식에 대한 관점이 왜곡된다는 Lundholm과 Waters(1991)의 연구와 가족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양식은 내담자의 섭식행동과 신체에 대한 왜곡된 인지와 높은 상관이 있다는 정영선(2005)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 부모로부터의 지지를 많이 받을 수록 섭식태도에 문제가 더 낮았다는 Ata 등(2007)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이 연구결과는 가족기능 수준이 높을수록 섭식문제행동이 더 낮았다는 Dinsmore와 Stormshak(2003)의 연구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여섯째, 심리적 복지와 섭식태도와의 관계에서는 자존감과 섭식태도는 부적 상관관계 나타냈고 우울감과 섭식태도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완송(2004)의 여고생의 식이장애 및 식이태도 관련 변인연구에서 자아존중감 점수가 낮을수록 식이태도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나 식이장애의 위험성이 점점 증가한다고 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섭식에 관한 개인의 태도가 그의 자존감이나 불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다른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데(Fisher, 1994) 이러한 연구들은 비정상적인 식이행동은 낮은 자아개념, 높은 불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식이장애행동은 자아존중감과 유의하게 부적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한 이상선(1993)과 안소연(1994)의 연구결과와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 낮은 자아존중감과 높은 우울수준을 불러 일으켜 식이장애의 주요한 발병원인이 된다고 한 Button(1996)과 Mintz(1988), Ata 등(200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우울감과 섭식태도의 정적 상관관계 결과는 안소연(1994)의 연구에서도 폭식행동을 보이는 집단이 정상집단에 비해 우울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김선정(2005)의 우울과 폭식행동은 궁극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들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문제가 있는 섭식행동은 자존감 및 우울감 등의 심리적 지표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곱째, 여자청소년들의 섭식태도에 대한 관련변인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섭식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우울감 및 학년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우울감이 높을수록 그리고 고등학생 집단이 중학생 집단보다 부정적인 섭식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심리적 복지의 긍정적 지표와 부정적 지표를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부정적 지표인 우울감이 섭식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자 청소년이 건강한 섭식태도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우울감 감소에 우선적인 초점을

두어야 함을 시사한다.

여덟째, 부모에 대한 애착이 자아 존중감, 우울감의 심리적 복지를 통해 섭식태도에 미치는 간접영향 분석을 위해 경로분석을 탐색적으로 실시한 결과 섭식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청소년의 우울감이었고 부모에 대한 애착은 우울감을 통하여 섭식태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기능 혹은 부모와의 관계가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존감, 우울감, 자기통제력, 혹은 대처행동과 같은 개인심리적 특성 변인이 매개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선행연구(Dinsmore & Stormshak, 2003; Leung & Schwarzmann, 1996)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결과는 부모와 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을수록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공허감이 우울감으로 연결되고 결국 왜곡된 섭식태도를 야기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섭식장애성향을 보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감 향상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결과 부모자녀관계와 심리적 복지 및 섭식태도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자청소년들의 왜곡된 섭식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외모지상주의의 사회문화적 요인에서 찾기보다는 청소년이 일차적으로 생활하는 가족에서 먼저 찾아야 할 것이고 부모와의 친밀한 유대관계를 향상시킴으로써 기능적인 섭식태도로의 변화가 가능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은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와 더불어 친밀감을 형성하고자 하는 욕구를 동시에 가진다. 청소년의 이러한 욕구가 균형을 이루고 충족될 때 건강한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음은 본 연구에서 또 한번 확인되었다. 따라서 섭식태도 문제로 나타나는 여자청소년의 발달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 뿐 아니라 부모자녀관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몇 가지 제한점을 기초로 후속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전라북도 소재의 일부 여자 중·고등학생을 표집 하였는데 여자청소년의 규모를 감안했을 때 조사 대상자의 거주지에 있어 폭이 좁고 가정의 월 평균소득이 전국평균보다 낮았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켜 확대 해석함에 있어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는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표집에 기초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둘째, 조사대상자를 일반계 중·고등학생으로 표집 하였는데 무용과 여대생의 섭식태도에 관한 연구(김희영, 김숙영, 2003)로 비추어 후속연구에서는 일반계 이외에도 실업계, 공업계, 예술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넓은 범위의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섭식장애 문제는 주로 청소년과 젊은 성인 여성의 문제라는 지적(Ata et al., 2007; Dinsmore & Stormshak, 2003; Silva, 2007; www.apa.org)에 비추어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을 포함한 젊은 성인여성 집단을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여자청소년들의 섭식태도에 대한 관련변인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서 자아존중감과 우울감을 개개의 독립변수로 두었는데 두 독립변수간의 상관의 정도(r=-.62, p<.01)가 높아 우울감이 자아존중감과 상호작용할 때 섭식태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 또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우울감과 자존감의 곱을 나타내는 상호작용 항을 독립변수로 취한 분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권두승·조아미(1998). 청소년의 섭식행동 및 태도와 문제행동과의 관계. **교육문제연구, 10,** 77-98.

공성숙·현명선(2002). 섭식장애 환자와 모녀관계. **정신간호학회지, 11(2),** 249-259.

금명자·김택호·김은(2002). **청소년 상담의 기초.** 한국청소년상담원 出.

김오남(1998). 편모가족의 가족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정욱(2000). **섭식장애: 날씬한 몸매를 위한 처절한 투쟁.** 서울: 학지사.

김규민(2000). 청소년의 섭식태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대전·충남지역 여고생의 신경성 섭식성향을 중심으로- 목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인숙(2001). 중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 친구지지와 행동문제.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노영경(2005). 체형만족도와 섭식장애 및 자존감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명재원(1995). 여고생의 대식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사회환경적 요인을 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준성(2001). 여고생 식이태도와 심리적 및 생리적 요인: 우울감, 공격성, 충동성 및 혈중 콜레스테롤과의 상관관계.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성미혜(2002). 여대생의 섭식장애행동과 우울간의 관계. **인제논총, 17(1),** 425-439.

성미혜(2005). 여대생의 섭식장애, 신체증상 및 자아존중감의 관련성.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55-166.

소옥현(2006).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이 아동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남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송미현(2004). 고등학생의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 및 학교

적응의 관계.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완송(2004). 여고생의 식이장애 및 식이태도 관련 변인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경혜(2003). 여자대학생들의 섭식장애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여성건강간호학회지, 9(4),** 390-399.

이경희 · 유영달(2006). 동거부모형태에 따른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기능성과 심리적 안녕. **가족과 문화, 18(2),** 115-138.

이상선(1993). 여대생의 식사행동과 심리적 요인들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성은(2001). 청소년의 섭식태도와 자아개념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은아(2000). 청소년의 가정환경 변인에 따른 심리적 및 행동적 부적응.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정수(2006).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중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지은 · 이일하(2006). 여자 중학생의 섭식장애 패턴 분류와 이에 따른 체형인식, 체중조절행태 및 식습관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7(2),** 89-103.

정영선(2005). 청소년의 섭식장애와 가족기능과의 관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7(3),** 685-706.

조아미(1999). 청소년의 정서관련 섭식욕구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0(1),** 123-138.

주은정 · 박숙희(1998). 여대생들의 신체상과 다이어트가 섭식장애, 식이섭취량 및 사회 심리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Vol. 24,** 399-411.

최규련(1998). 가족체계유형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복지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1),** 120-142.

최규련(1999). 가족체계의 기능성, 부모 및 자녀요인, 부모-자녀관계가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복지수준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자녀의 우울정도와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132,** 99-111.

최진숙(1991). 청소년기 섭식장애. **대한의학협회지, 382('91.11),** 1179-1182.

최현영(2005).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와의 애착과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관계.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황경순(1998). 청소년의 우울, 가족관계, 대처방식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황란희 · 신혜숙(2000). 여고생의 섭식장애와 신체상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6(1),** 129-141.

Armsden, G. C. & Greenberg, M. T(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Ata, R. N., Ludden, A. B., & Lally, M. M. (2007). The effects of gender and family, friend, and media influences on eating behaviors and body image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36*, 1024-1037.

Atkinson, R. M. and Ringuette, E. L(1967). A survey of biographical and psychological features in extraordinary fatness. *Psychosomatic Medicine, Vol. 29*, 121-133.

Bowlby, J(1989). Secure attachment, N.Y.: Basic Books.

Brownell, K. D. and Fairburn, C. G(1993). Overciming Binge Eating, N.Y., The Guilford Press, 232.

Coopersmith, S(1967). The antecedent of self-esteem. San Francisco : W. H. Freeman.

Dinsmore, B. D., & Stormshak, E. A. (2003). Family functioning and eating attitudes and behaviors in at-risk early adolescent girls: The mediating role of intro-personal competences. *Current Psychology: Developmental, Learning, Personality, Social, 22*(2), 100-116.

Felker, K. R. and Stivers, C(1994). The relationship of gender and family environment to eaing disorder risk in adolescents. *Adolescence, 29*, 821-834.

Herman, C. P and Polivy, J.(1988). Excess and Restraint in Bulimia,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Vol. 146,* 963-971.

Larson, B. J(1991). Relationship of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to eating disorder Inventory scores in adolescent girls. *Journal of American Diet Association, 91*, 1065-1040.

Leung, F. and Schwarzmann, A(1996). Testing a dual-process family model in understanding the development of eating psychopathology:A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 20*, 367-375.

Lundholm, J. K and Waters, J. E(1991). Dysfunctional family systems. Relationship to disordered eating behaviors among university women. *Journal of Substance Abuse, 3*, 97-106.

Rice, K. G(1990). Attachment in adolescence : A narrative and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9*, 511-538.

Rosenberg. M(1965). *Society and Adolescents self-image*.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Silva, A. S. F.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per-

sonality traits and eating pathology in adolescent girls. *Archives of Women's Mental Health, 10*, 285-292.

Stein, K. F. & Hedger, K. M.(1997). Body Weight and Shape Self-Cognition, Emotional Distress and Disordered Eating in Middle Adolescent Girls.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11(*5), 264-275.

Wardle, J(1987). Compulsive eating and dietary restraint.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6*, 47-55.

www.apa.org/topics/topicseating.html (2008). Eating disorders.

□ 접 수 일 : 2008년 05월 15일
□ 심 사 일 : 2008년 07월 04일
□ 심사완료일 : 2008년 07월 29일